

전남 중부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김일태 영암군수

4000ha 친환경 쌀 단지 조성

김일태 영암군수는 '군민이 행복하고, 군이 잘사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창조적 농업정책 ▲성장 기반 확충 ▲희망공동체 조성 등 새해군정 3대 추진전략을 밝혔다.



향상, 고용창출 등 일거삼득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쌀 제분공장 설립

군은 친환경 가치창조 농업정책으로 생명농업 확대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비교 우위 농산물 재배확산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 계획이다.

향상, 고용창출 등 일거삼득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 군수는 "영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7만 군민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불산단 등 산업기반 시설을 보완·확충해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은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의 관광자원 활용으로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역사·생활이 융합된 관광 콘텐츠를 구축 소득과 연계 시킬 계획이다.

F1 주변 관광 개발

군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 향상 지원으로 안정 공동체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복지혜택 강화로 공존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무한 복지를 목표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간다.

'작약' 겨울에도 꽃핀다

강진농기센터, 재배기술 개발

겨울철에도 수확가능한 작약꽃 재배 기술이 개발돼 농가 수익증대가 기대된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의 작약 재배기술 개발에 나서 최근 한겨울인 1월에도 생산할 수 있는 절화(折花) 작약재배에 성공했다.

으로 예상된다. 일반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약과 달리 절화작약은 하우스재배를 해야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660㎡(200평)가 적절하며 면적이 좁은 작약 재배기간이 필요한 만큼 참고시설비를 감안해도 3년후부터는 4000만 원 수확이 가능하다.



풍영정천,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광산구 '고향의 강' 선정...67억 투입

광주 수완지구의 상징 풍영정천이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도심형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산구는 지난 7일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 '고향의 강' 사업에 풍영정천 개발계획이 선정돼 국·시비 67억원을 확보했다.

2.9km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했다. 구는 풍영정천에 맑은 물이 사계절 내내 흐르면서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 얼굴

"직원 만족도 높여 서비스 차원 높일 것"

김상권 장흥우체국장



"우편소통 품질향상과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김상권(57) 장흥우체국장은 "명랑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우편·금융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 나가겠다"며 "직장내 '즐거운 일터 동아리'를 운영해 직원내부 만족도를 통해 경영성적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고흥 출신인 김국장은 지난 1985년 광주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1998년 부처간 이동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로 옮긴 후 순천 우편집중국장, 구례, 보성, 순천, 광양우체국장 등을 역임했다.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강인형 순창군수

순창 장류 글로벌 브랜드 육성

"새해에는 민선5기 공약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순창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설정하고 힘찬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지난해는 장류의 특성화된 산업형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순창 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11년도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되고 농업농촌, 복지분야 등 14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에도 그동안 순창군이 행정력을 결집해 추진해 온 핵심전략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새해포부를 밝혔다.



리내리는 원으로 삼고 귀농인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김 군수는 "순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류와 장수산업을으로 창조적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순창장류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건강장수의 산업화 기반 마련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폭격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150여명 일자리 창출

우선 군은 누구나 일하고 잘사는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5억 원을 투자해 1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기에 서울대와 공동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며, 육천인재육성의 야심찬 운영으로 미래의 순창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주력해 미래의 밝은 순창을 꿈꾸고 있다. 셋째 아이 '무상 보육' 새해 군정가운데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군은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시설(어린이집) 보육료를 모두 부담하는 '무상 보육'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문화 계승발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대 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순창문화원(원장 김기곤)은 지난 7일 문화원 사무실에서 신현수 부군수를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 명예회원, 역대 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구제역 난리속 中골프여행 잇단 비난

전북시민단체, 도의회의장 사과·사퇴 촉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중국으로 골프 외유를 떠난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하루빨리 복귀해 사과하고 민생을 보살피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서울 출장이라 속이고 해외 골프여행을 간 김 의장은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의정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구제역으로 도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지인 등 네 가족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골프여행을 떠났다.

450년 해로 '부부 느티나무'

전북도 보호수 지정...정읍 상징물 '화제'

백제가요 정음사(井邑謠)의 발원지인 정읍에 또 하나의 부부가 상징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해 12월 전북도 보호수로 지정(9-4-29)된 태인면 낙양리 외이마을 '부부 느티나무'.



시는 보호수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주변 정비사업과 외과 수술 등을 통해 보호·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읍 지역에는 신정동 정혜마을 부부나무를 비롯 모두 56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됐다.

강천산 음용수 우수성 확인

순창군, 향산화 성분 밝혀

순창군 강천산 음용 온천수가 음용수 기준에 맞는 우수한 알칼리 환원수로 밝혀졌다. 순창군은 강천산 음용 온천수의 우수성을 밝히기 위해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7일 주민 64명을 대상으로 향산화효과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임실 정책동아리 '두드림' 출범

임실군의 우수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할 정책연구동아리 '두드림(Do Dream)'이 지난 7일 출범했다. 군청 내 8-9급의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3개팀 24명으로 구성된 '두드림'은 10월말까지 ▲농촌발전방안 ▲지역개발 ▲문화관광산업 분야 등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된다.